

제 38 호

연중제 20 주일  
(강림 후 10)

1973. 8. 19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 [강론]

## 부부애(夫婦愛)



박진량 신부

얼마전 영국인 베일리씨 부부가 난과되어 표류하기 시작할지 117일만에 한국 어선 월미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화제거리가 되었다.

九死一生的 역경과 절망속에서 117일간을 살아온 체험담을 실로 감명 깊은 것이었다. 그 베일리씨의 말이「끝없는 파도와 그 파도의 끝자락에 이어진 하늘이 우리를 인간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켰지만 그 단절이 완전한 그 만큼 우리 두 사람의 사랑도 완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처절하리만큼 숙연한 느낌조차 들었다.

죽음의 위협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극한 상황 속에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얼마나 절박한 부부애로 결속되었을가는 상상하고도 남음직하다.

이들에게 그와같은 사랑이 없었던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끈질긴 인내심과 용기를 우리도 나누어 가질 수 없을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 볼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베일리씨 부부처럼 절박한 극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원인에서 이거나, 신체적인 원인에서 이거나 간에 극한 상황인 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인 경우가 많으리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打開해 나갈는지 의심스럽다. 소극적인 태도로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다가 미리 지쳐서 파멸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아무런 근거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 인내심과 용기를 어디서,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 선천적인 기질에만 의존해 버릴 것은 아니다. 베일리씨 부부의 경우처럼 사랑의 紐帶는 역경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은 바로 부부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온상(溫床)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의 가정에도 것처럼 철두철미한 부부애가 가득차서 글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가톨릭 세타 관장)

###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보소서, 우리 방패, 하느님이여 당신께 축성된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실로 당신의 쉼터라면 천날보다 더 나은 하루 되나이다.

□제1독서 (잠언 9:1-6, 경향잡지 8월호 P. 46)  
내가 주는 빵을 먹고 내가 주는 술을 마셔라.

□총계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모름지기 배 혀는 악을 삼가라. 거짓된 말들을 네 입술은 삼가라. 사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 가라. ◎

□제2독서 (에페소 5:15-20, 성서P. 444)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살리라. ◎

□복음(요한 6:51-59, 성서P. 218)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 □신자들의 기도

1. 젊은이들의 올바른 스승이신 예수여,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중·고등 학생들의 교구 지역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리나이다. 항상 그들을 지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리교사 연수회와 이어져 있는 사목지침 마련을 위한 교구 대 협의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진리의 성신이며, 저들을 올바른 인도하시어 알찬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 주소서. ◎

3. 성년의 뜻을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갖는 특별 강론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년의 뜻을 알아들어 당신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 하소서. ◎

+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주여, 당신에게 온전히 매달릴 때마다 당신의 자비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아듣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술 나는 하느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이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 ※ 이 주간의 성경 ※

- 20(월) 독서 (디모테오 전서 5:1-2, 성서 P.480)  
복음 (마 태 오 19:16-22, 성서 P.45)
- 21(화) 독서 (디모테오 전서 5:3-7, 성서P.480)  
복음 (마 태 오19:23-30, 성서P.46)
- 22(수) 독서 (디모테오 전서5:8, 성서P.480)  
복음 (마 태 오20:1-16, 성서 P.47)
- 23(목) 독서 (디모테오 전서 6:3-10, 성서 P.481)  
복음 (마 태 오 22:1-14, 성서 P.52)
- 24(금)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독서 (묵시록 21:9-14, 성서 P.589)  
복음 (요 한 1:45-51, 성서 P.204)
- 25(토) 독서 (디 모테오 전서 6:17-19, 성서 P.482)  
복음 (마 태 오 23:1-12, 성서 P.55)



□대화의 광장□

□잔디밭□



### 부채와 학생회

한 상 갑

지난 7월(7. 23-26)과 8월(8. 11-13), 두차례에 걸쳐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지역대회가 있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특별한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며 그간의 부진하고 미진했던 모든 활동들에 대한 제평가와 새로운 자세를 모색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담자도 신부 한분을 모실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처지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소위「학생운동」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만한 이들은 알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의 학생 활동이라서 여러가지 난관들이 많기는 하나, 내일을 생각하고 보면 촌시(寸時)의 중당도 있을 수 없다고 보겠다.

지역대회는, 고마웁게도 부안 본당의 마포 공소나 김제 본당의 열성어린 협조가 있어 두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특히 김제 본당에서 보여준 협조야말로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본당 신부님의 세심한 배려는 물론, 염치하에 밥을 지어주신 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교구학생연합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 참가한 충남 금산 본당 학생들을 비롯한 91명의 학생들(본당 대표 75명, 교구 임원16명)과 10명의 지도자들이 더욱 고마움을 금할 수 없었던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예산 부족으로 맹물로만 만족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과일로 즐겁게 해주신 사도회, 시원한 바람을 내라고 부채와 노트를 보내주신 김치덕님(사도회 부회장), 사이다를 주신 김정규님(김제중앙교구)들의 미담이 바로 그것이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구적이고도 체계적인 학생활동을 위한 일들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을 다시한번 절감한다.

(교구 사무협의회 교육 분과 위원장)



### 주님의 음성

정 세시리아

살며시 눈을 떴을때 여름밤의 무더위가 온몸을 엄습해 왔다. 그대로 계속해서 잠을 청하기는 어려울듯 해서 잠깐 성모님께로 향한 기구를 드리며 잠시동안 잠입을 없애려 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푹푹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내 귓전에 지극히 적은 소리로 밤의 정적을 깨뜨리다가, 수줍은 소녀의 마음 같았는지 아주 조용히 들려왔다.

조금전 패종시계가 3시를 알려 줬으니 아마 첫 새벽인가 보다고 생각했을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조금씩 뚜렷해지는 듯 했고 밖의 고요로움도 점점 사라져가는 듯 했다.

은 대지가 숨을 죽이고 깊은 잠을 청하는 이밤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조물주께선 이 우주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1분 1초도 쉬시지 않고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아랑곳 없이 무책임하게 삶을 영위해가는 인간들을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신 자애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가름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비로움을 가득 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나 보다는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칠때 나는 다시한번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 드릴 수 밖에 없었다.

이 비로 인하여 농부들이 피땀흘려 가꾼 농작물들의 수확이 늘어나길 비는 마음과 함께 성서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복음대로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돌팔이나 나쁜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자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자기의 맺실배를 낼수 있는자 될수 있도록, 현세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신자로써의 주체성을 확고히 갖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덕진본당)

□독서회 안내□

### 성 바오로서원 독서회

(문의는 전화 ㉠ 7398)

○ 특 전 ○

1. 본 출판부 간행물은 우송시 15%할인, 단 송료는 본사 부담합니다. 성바오로 서원에서 직접 구입 할때에는 20%할인 해드립니다.
2. 성바오로 서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타 출판사의 서적에 대해서도 우대 합니다.
3. 출판 될 서적을 선불 주문시에는 25%할인 해드립니다.
4. 모든 회원에게 1년에 1회 본 출판부 간행물을 1권씩 증정 사케 합니다.
5. 새 회원을 3명 추천해 주시는 회원에게는 유니버살 문고 1권을 증정합니다.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 신 우 라 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2212 ㉡7071)  
김 병 구(빈첸시오)

각종생과자 식빵 및 케익

## 미미 제과소

전화 ㉠ 6589  
(미미사장 ㉠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 민 주 (가타리나)



□ 양 지 쪽 □



역 마 살

고등학교 시절의 은사님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벼라별 재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처음 대면했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워낙 격의없이 대해주셔서 숨김없는 이야기들이 자주 오간다. 선생님께서는 안정이 잘 안되는 당신의 생활을 일컬어 사주 팔자에

「역마살」을 끼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곤잘 말씀하십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의 교통 통신 수단이었던 역마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험뎌이며 뛰어야 제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뛰는 말도 말이겠지만 말고빠를 잡고 더불어 뛰는 사람은 어땠을까?

평소에도 집에 잘 붙어 있지않는 내 처지 때문에 말을 많이 듣는데, 금년 여름방학은 어찌도 그리 더 하는지 모르겠다. 대학생들의 지역대회(변산), 평신도 전국회의(왜관) 연수회 강사교섭(서울), 고등학생들의 지역대회(김제)에 뛰다보니 도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설상가상 격으로 4주간의 강습(서울)까지 지명 되었다. 거기까지만해도 아쉬운 대로 괜찮았는데, 연수회(8. 19-25)를 준비만 해놓은 처지라 한주간 동안에 거쳐 세 차례나 전주-서울 간을 뛰어야 했다.

은사님이 말씀하시던 역마살이 어찌면 나에게도 있는 성 싶다(?) 뛰다보니 주보 원고 마감이라 이글을 달리는고속버스 안에서 쓴다.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먼지로 휩쓸며 미친듯이 뛰는 버스가 아닌 것만이 다행일 뿐이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뛰는 보람만 있다면야 그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만, 까딱 하다가는 소문난 잔치 먹을것 없는 처지가 되거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시간표도 제대로 안보고 몇날 몇일이고 똑같은 책가방만 들고 왔다갔다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겁이 난다.

사람은 바빠야 한다는데, 이 더운 날 너무나 속없이 바빠서도 안되겠다.

(갑)

요십이 (5) 김병오



더위에 건강 하십시오  
성 바오로 서원

<직원 채용 긴급광고>

전주시 서노송동 601  
전주 가톨릭 센터\*

본 가톨릭 센터는 보일러 조수및 건물관리 담당직원 1명과 사무실 의무담당직원 1명을 아래와 같이 전형하여 채용코자 합니다.

- 1. 자격: 현역 복무를 필한 남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 2. 제출서류 및 마감일자: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1통과 관할 본당신부의 추천서 1통을 73년 8월 26일까지 본 센터의 접수실에 제출.
- 3. 전형방법및 일자와 장소: 보일러 조수및 건물관리 담당직원에게는 간단한 실기시험과 면접, 사무및 의무담당 직원에게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73년 8월 27일 오전 10시에 본 센터에서 실시함.
- 4. 기타사항: 채용여부에 관한 통지는 전형된 분에게만 취업예정일인 73년 9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973년 8월 15일 성모승천축일에 가톨릭 센터 관장 드림

전주전신전화국 앞  
제과 ②5011 찾집 ③5013

\*개업\*

프랑스 제과  
\*임금님 찾집\*

「프랑스제과」에도 대형 에어콘 설치!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원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왕자표연탄

전화: ②5287 ③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  
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 (분도)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 1. 교구 교리교사 연수회 (8. 19-22, 가톨릭센터)
- 2. 교구 사목 지침 마련을 위한 대 협의회 (8. 23-8. 25, 가톨릭센터)

강사 김남수 신부 현석호 선생

- 3. 성년 특별 강론 (8. 23<목> 오후 8. 30-10시, 중앙성당)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신학박사 김남수 신부님의 특별 강론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4. 빨랑카 요청

청주와 인천교구 꾸르실료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꾸르실리스타는 전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식)

(중앙)

(전화 22651, 2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학생회 제1차 연수회 어제부터 중·고등학생들의 연수회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구 드리며, 성원을 보냅니다.
- 2. 교구 대 협의회 교구 사목을 위한 대 협의회에 불려 받은 임원들은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 3. 성년 특별 강론 화해의 성년을 맞아 8. 23<목> 오후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신학박사 김남수 신부님의 특별 강론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4. 감사드립니다. 지난 성당 대청소에 참여 봉사해주신 열세분 (남 5, 여 8)에게 감사드립니다.
- 5.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공식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31,257원, 감사합니다.
  - 성모 승천축일 헌금 31,270원

(복자)

(전화 2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견진하실 분은 속히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2. 9월에 영세하실 분은 매주일 10시 미사후와 매주요일 저녁 8시 미사후에 있는 예비신자 교리에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3. 오늘 오후 1시 30분 꼬미시움 회합이 전동에서 있습니다.
- 4. 9월이 연말입니다.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합니다.
- 5. 제1차 교구 사목에 대한 대 협의회가 23-25일까지 카톨릭센터에서 있어오니 교형 자매 여러분은 이 대 협의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1,073원
  - 성모 승천 봉헌금 9,70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성미 3말 누계 181말 1되

(서학동)

(전화 2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목낙철

- 1. 성년 특별 강론 (8월 23일<목> 오후 8. 30분 중앙성당)에 많이 참석을 요망합니다.
- 2. 견진심사 신청은 8월 31일까지 마감합니다.
- 3. 신자 기록부 8월 31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용조합 이사회 8월 25일 저녁미사후 있음
- 5. 신용조합 월례회 8월 26일 공식미사후 있음
  - 지난 주일 봉헌금 8,856원
  - 성모 몸소 승천 특별봉헌금 11,27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2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꼬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30분 사제관
- 2. 첫 영성체 다음주일 어린이 첫영성체 있습니다.
- 3. 레지오 마리에 대열 참여 합니다.
  - 새 전동 성당을 이룩하는데 협조 하신분
  - 한상호, 배순배(각 5,000원) 강용애, 무명(각 3,000원) 고태식(2,000원) 오화영(1,500원) 김정숙, 장점봉, 정인학, 이원길, 강복남, 신봉순, 김숙희, 정봉순, 정삼례, 이재경, 이덕순, 조정웅, 이상수, 김남덕, 김영옥(각 1,000원) 배양길, 배성년, 정만갑(각 500원)
  - 소계 36,000원 누계 764,300원 자갈200추럭 탁주 3섬
  - 지난 주일 봉헌금 28,077원
  - 애령회 특별 헌금 6,932원
  - 성모승천 축일 봉헌금 26,354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2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있음>
- 3. 성프란치스코 제속 형제회 제7차 총회 및 1차 강습회 노송 형제회에서 3명 참석합니다.
  - 지난 주 성미 2말 2되 누계 4가마 1말
  - 지난 주일 봉헌금 12,969원
  - 성모 승천 봉헌금 13,0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2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신용조합 월례회 <이번주 공식미사후>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출자 바랍니다.
- 2. 부녀부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 3. 레지오마리에 대열에 참여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5,171원, 감사합니다.

◎ 닭·염소·아생동물 일체 ◎

화랑 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 시장 닭전 전화 26691 (교환)108



최 씨 관 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26691 교환85번)